'마을에서 배우는 학교 밖 학교'

중구, 2026 마을학교 운영자 공모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마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2026년도 중구 마을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개인·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중구 마을학교' 사업은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활용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교육의 빈틈을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 공동체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공모 대상은 중구에 소재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별도의 교육 장소를 확보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다만,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해 올해는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을 구분해 지역별로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구가 선발은 하되, 사업 수행은 새로운 자치구인 영종구와 제물포구에서 하게 된다.

운영자로 선정되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생태·환경·역사 관련 활동, 문화·예술 체험 등 각종 배움·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배움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중구 제2청(운남서로 100) 평생교육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업 담당자 이메일(ksw878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300만 시민 염원의 결실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 본회의 통과 시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도약

초당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지 속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들도 원만히 조율됨에 따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여건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남동시니어클럽, 경로당 반찬 지원

남동구는 최근 남동시니어클럽과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에 반찬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0곳에서 100곳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남동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188개 경로당 중 재정이 취약하고 식수 인원이 많은 경로당 50곳을 선정, 노인 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인 '정도담'에서 만든 반찬을 매월 지원했다.

'정도담(정성을 도시락에 담다)'은 남동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남동구가 2024년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장형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구는 지난 한 해 경로당 50곳(월 1회), 취약 어르신 40명(월 4회)을 대상으로 반찬배달사업을 추진했으며, 복지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를 통해 약 1억 5천 800만 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 사업은 경로당의 주 5일 급식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복지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남동구는 이러한 사업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부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행정기관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후원이 함께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과 함께 이날 사업 확대를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한 지역주민 박은영 씨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과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잊지 마세요"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어가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강화군의 수혜 대상은 9,5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어가이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가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농업e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며, "고령 농어업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계양구, '교통문화지수' 2년 연속 상승… 전국 자치구 '1위'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동일 그룹(69개 자치구) 가운데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지난해 전국 3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최고 순위를 달성하며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장조사·통계자료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지표이다.

계양구는 총점 89.56점을 받아 전년도(85.56점) 대비 4점 상승했으며, 자치구 평균(81.34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 통학로 개선,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민관 협력 캠페인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교통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개선과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계양구는 2024년 발표된 '교통안전지수'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표 변화와 현장 여건을 점검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 지원 중심의 소통 감사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한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자체감사는 현장 지원 중심의 컨설팅 감사와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는 소통감사 ▲행·재정상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감사 ▲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감사 ▲시민감사관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열린감사로 감사 방향을 설정해 운영한다.

특히 학사일정을 고려해 감사 기간을 조정하고 자율 점검표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며, 자율감사 범위를 공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교 현장의 감사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비리 무관용제'와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한눈에 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이해 자료'와 '읽걷쓰 프로젝트 운영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두 가지 자료집은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각 학교에서 새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2월 중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진로연계교육 및 정보교육 강화 등 주요 개정 내용과 읽걷쓰와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현장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심하린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면·대청면 '새해 소통' 시동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면과 대청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물리적 거리가 먼 서해5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옹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신영희 인천시의원,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 및 백동현·김택선·김규성·이종선·김민애 의원, 지역 리더와 유관기관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며 주민 화합을 다졌다.

먼저 2일에는 최근 준공된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백령면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200여 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2025년을 끝으로 퇴임한 최의신 연화2리 노인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지역 리더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백령면의 최대 숙원 사업인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 도입과 ▲백령공항 건설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